



이명원씨

새움/A5신/344면/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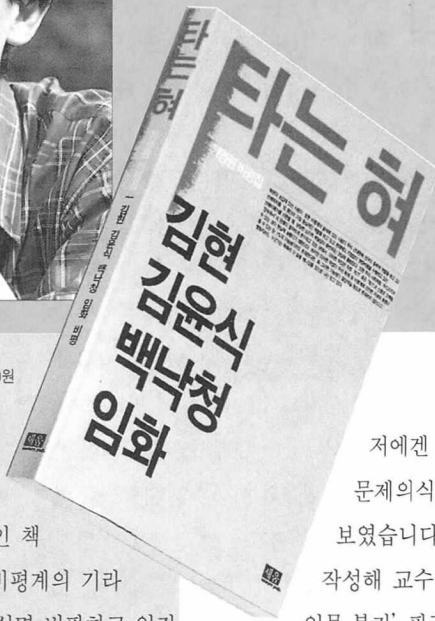
이명원씨(31, 문학평론가)의 첫 평론집 《타는 혀》(새움)는 여러모로 문제적인 책이다. 문단의 관행을 깨고 비평계의 기라성같은 '현역' 비평가들을 실명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젊은 비평가가 도전적으로 분석한 비평가는 김 현·김윤식·백낙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임 화는 그 문학사적 중요성 때문에 다시 '호출'한 경우다. 이것만 봐도 《타는 혀》가 얼마나 많은 논쟁의 '뇌관'을 내장하고 있는지 알 만하다.

문단의 금기에 도전해

“한국문단의 해석학적 금기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생존인물을 문학사적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관행과 거기서 파생된 갖가지 금기들이 비평적 주제의 현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제도문학에 도전하는 모험적 실험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편의 긴 논문과 세편의 소논문으로 이뤄진다. 책의 뼈대를 이루는 <김 현 비평과 근대성의 모험>은 석사학위 논문이다. 이 논문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책의 구성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엔 임 화로 논문을 써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 모으고 논의거리를 찾아보니 제가 할 말은 이미 기존연구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방향을 김윤식으로 돌렸죠. 그때



‘금기영역’에 던진 젊은 비평가의 출사표

《타는 혀》 펴낸 이명원씨

신예 비평가 이명원씨의 첫 평론집 《타는 혀》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비평계의 기념비적 인물을 정치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명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김윤식·백낙청·임화 등 이미 신화화된 이론가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논리에 반하는 입장과 언제라도 논쟁할 자세가 돼 있다고 기염을 토했다.

저에겐 김윤식 비평이 임 화적 문제의식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열심히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교수님을 찾아갔으나 ‘생존 인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존인물이 아니면서 연구되지 않은 대상을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김 현에게 관심이 갔다. 또 김 현 비평은 사후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넓은 문학적 자장과 풍부한 ‘현장성’을 갖추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임 화에서 시작된 연구가 김 현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네명의 비평가는 ‘타는 혀’로 문학현장에 적극 개입하고 발언한 이들이다. 이씨는 이들을 통해 1960년대 비평가들이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온몸으로 체현하는 과정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왜곡된 자기정립을 파헤쳤다. 프로문학의 이념이 좌절한 후 현실과의 새로운 관계모색을 통해 또 다른 주제적 삶을 꿈꾸고 고민한 임 화의 ‘주체 재건’ 논의, 임 화의 식민지적 근대성을 자기 자신의 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비평적 자화상을 모색한 김윤식과 그의 현해탄 콤플렉스, 개체성에 기반한 자율적 문학을 주창하며 분석적 해체주의로 이성을 무장시킨 김 현, 민족문학이라는 거대한 인식론적 틀 속에서 새로운 시문학을 모색했던 초기의 백낙청 비평 등이 대략적인 윤곽이다.

“정작 문제는 이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태도입니다. 김 현을 예로 들자면 대부분 무반성적으로

흡수하고 신화화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특권’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김 현이 작가의 심리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들었던 공을 김 현을 분석하는 후대 연구자들은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김 현 비평의 문제점 또한 지적한다. 특히 김 현이 문학작품을 판단할 때 드는 준거가 ‘자기-반영적’이기보다는 ‘자기-지시적’인 지점에서 그칠 때가 많으며, 그럴 때 김 현의 문장은 주관주의적 미적 판단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문학권력’ 논쟁 물꼬 터

“특정 대학을 정점으로 한 ‘수직 네트워크’는 문학권력에 학문을 종속시킵니다. 이런 현실에서 ‘독립적 지식인’으로 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 내쫓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의 내면화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자신의 이론적 성과를 밝히기 꺼려하는 자기검열과 항상 대결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비평가로 등단한 그는 연간지 《비평과 전망》의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비평과 전망》은 99년 창간돼 2호까지 나온, 젊은 비평가집단의 발인대. 작년에 치열하게 펼쳐졌던 ‘문학권력’ 논쟁의 물꼬를 튼 것도 이들이다. 자신의 첫 책에서 보여준 문제의식과 비판정신으로 이씨는 동료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간 셈인데, 그는 “언제라도 논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책 속에서 펼친 주장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 강성민 기자